

제주민요는 가친 자연환경과 서생선, 계승된 노동요가 주춧돌이 되고서 무엇인가(신의 퇴폐적 유혹)는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아니 할) 노동과 관련된 바가가 중첩되는 단조의質狀를 특색으로 하는 것이 제주민요다. 제주민요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거의 타악기뿐이며 그것도 거의 무릎을에서만 쓰임으로써 자연친화에서 보이는 단순한 선율악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제주민요에서 선율이 가 쓰이지 않는 것은薩因임이 불행의대는 거센바람이 가느다린 선율을 지우버리거나 혹은 바람소리 자체가 선율의기억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주의 3多(風多·石多·女多)는

「바람 많았으니 땀에 온다. 사철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의 지표의 75%
를 이루는 가벼운 화산화물과 다공
질(多孔質) 염류암토양을 비롯보내
면, 돌출성이 과배반 메마른 받들
질다. 제주시와 지역의 노동력의 많
아진다. 이것이 「3층」가 얹혀있는 유
기적 모습인데, 이중 「층」에는 해
를 돌 한뼘을 담았다.

제주시에서 漢拏山 허리를 타고 도
는 돌부리섬도로를 버스로 달리면 40
여분만 城壁에 닿는다. 漢拏山 기슭
을 따라 만개해있는 유채밭, 파슬의
들밭밭 속에서 도 한하게 피어 있다.

하고, 아이들을 기르며 농사를 지어온
金喬(金)기, 金敬玉씨(여 70)
들의 의하면 이 지방의 민요는 「이름

육지에서 한 지방에 수종의 노동
요가 불려지나, 일한 노동종에도 끝
한없이 노대를 불러온 제주도에 서는
한 지방에서 10명중의 노동요를 전승
해 오고있다. 제주만으로는 섬전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나 특히 제주시 涯月,
翰林 翰林은 서부지역의 노동요가 풍
부하고 역사가 오랜 南濟州郡城邑지
역에서는 노동요와 함께 唄論도 많
다.

불 발 발 발는 소리(발 발는 노대)
로부터 시작되곤 했다"고 한다. 겨울
에 일없이도는 땅이 부풀어 오르면 그
흙이 바위에 날려가 있어도 후수 십마리
의 땅과 소가 걷기 힘들을 때까지 오
고 가며 발을 걷는 것은 장난이었다.
어려럼 할 때들
어려어려 어려어려 어려어려
요만이지 저만이지

◇김 매며 「홍애기 타령」 제주민요의 대부분은 노동요이며 노래하는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다. 유서깊은 城邑마을의 여자들이 김을매면서 「홍애기 타령」을 부
르는데 만개한 유채꽃으로 온들판이 환하다.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南濟州郡城山浦에서 작업하는 해녀들. 발흥선이 보급되면서부터
해녀들이 작업을 나가면서 불려온 「해녀노래」를 일과 함께 들을 수

A vintage, sepia-toned photograph capturing a group of people swimming in a choppy ocean. In the foreground, the back of a person's head and shoulders are visible as they swim towards the center. Further out, another person is swimming, and a third is partially submerged on the right. Three large, white, spherical floats with dark grid patterns are scattered in the water. The background features dark, craggy rock formations jutting out from the sea under a pale sky.

어서 절이 보자
이러니 마야 하하한
민속언어가 李輔事씨는 지금 말
로 발을 밟히는 일이 없어 실제 부르
는 데는 없고 이들을 만의 이 노래를
기어올 뻔하다. 이제 젊은 선을 한
하고 유장한 건을 추는 그 말하

면서 그들을 순차시켜 아를 만은 「
醜聞(醜聞)」로 나간다.
60년대 중반에 제주에서 3년간 살
았던 시인 高銀泰는 그의 산문집 「濟
州에서」 「동숙」에서 뿌리를 내리
는 작품들을 제화하면 조·보리의 주
식농사, 농촌 생활의 단상 (略田)이 이

고 있다.

恨의 노동謠

그러나, 바깥은 달의 달빛과는 이

[illegible]

“홍얼대다보면 지리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지…”

[illegible]

【朴來富기자】

城邑마을 농요 마지막傳承

漢寧山기호의 종산간지역인 南濟州郡表善面坡邑里는 世宗때 이래 행종의 중시되어 왔으며 유서있는 마을이다. 산골머리를 보고 난 신홍부부는 이 西歸浦로 가는 길에 들르게 되는 땅 나무 3그루만 있는 古木3그루가자리에 서있는 「坡邑民俗촌」이 그 마을이다. 坡邑마을을 지은 유서마을이나 풍부한 민요를 입안에서 불렀고 있고 있지 않나 86년 인간문화제로 지명된 趙乙善의 (甲·74坡邑1里8888)는 그 민요들의 마지막 전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趙할머니는 남편을 따라 일본에서 살았던 13년간을 제외하고는 편지를 안 이고 창에서 전송되는 민요속에 묻혀 지내며 누대(累代)를 통해 전해지는 민요의 맛과 결기표를 자력으로 터득하여 그가 도달한 경지가 노년에도 이르러 뒤늦게 세상에 공인받게 된

안 이고 창에서 전송되는 민요속에 묻혀 지내며 누대(累代)를 통해 전해지는 민요의 맛과 결기표를 자력으로 터득하여 그가 도달한 경지가 노년에도 이르러 뒤늦게 세상에 공인받게 된

이웃주민·여학생
74살에도 美聲...

趙할머니 마지막 전승자가 될지도 있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민요의 수도 10여곡으로 남보다 많을 터라 어떤 출판이 바뀔에 따라 이제는 이거

74살에도 美聲: 부르는民謠 10여곡
이웃주민·여학생들 모아 가르치기도

머니。
趙할머니가 마지막 전승자가 될수도
있다는것은 그가 알고있는 민요의 수
도 10여곡으로 남보다 많을뿐더러, 연
흥법이 바뀔에 따라 이제는 이곳 사

말을 일용하면서 민요를 부르는 것이
이것이요, 재운다.

趙興남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
에 대한 주면의 평가와는 달랐다. 매
우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긴 생애와 민요의 물인
과 의 의미를 이루게 되는 과정에 대해
어기랄라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고, 재
목을 위해 노래를 찾았을 때도 그럴
계속했다.

그는 조발에 김이 부성한 철
이런이 집 자락에서 그를 찾았을 때

나는民謠 10여곡

모아 가르치기도

문을 활짝 내었다.

30여명의 학생들이 조발에 들어서서
그가 진지하게 노래의 흥미와 리듬과
「어귀기 소리」를 선험하면 어인을
이 후를 받아 나갔다. 메기는 앞소

이『저 밥에는 乙 薺(이)가 소리를 매기
는 구나』하고 멀리서도 소리를 받아
주기도 했다.

그는 「민요를 배우고 말고도 없이,
할머니들과 함께 일을 하며 따라부른
것뿐」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비
교적 본격적으로 민요수업을 시킨 이
물론은 친네작에 城邑마을에서는 명
창으로 소문났던 「李奇 할만」을 따

을했다. 「李氏 韓臣」은 발음을 하면서 틀렸는데 그에게 메기는소리와 발는소리를 차근차근 가르쳤다.

趙씨 18살에 동래 청년과 결혼했다. 21살부터 13년간 남편과 함께 일본 大阪에 사는 동안은 제주민요와 단절이 되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1년3개월을 머리고 귀국, 城山에서 돌고 돌아오면서 다시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34세였으니 민요의 참면과 기교를 원숙하게 체득할 수 있는 나이였다.

국악에 대한 관심의 높아질 무렵인 70년대 중반부터 金榮敦교수(濟州大)의 趙韓女의 노래를 채록하면서부터 그의 존재는 城山마을을 넘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80년 근처 表壽堂중학교 교사와 여학생들이 趙韓女의 노래를 배워 간 것을 계기로 그는 「민노대」가 되리 지 않으면 없었으니 「민노대」는 사실의 누버, 주민들을 무시무소나 학교마다 에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쳤다. 그 결과 83년 한라문화제에서 城山마을을 대표하는 노래가 타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趙韓女는 「3, 4년전부터 할아버지 높아지고 숨이 차서 목소리가 전만부 하냐」고 미안해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의 길게 뽑는 부분에서 서는 기력이 떨어져 전처럼 아니었다. 못을 안락하게 울며도 없지 않았고, 이젠 못을 안락하게 울었다.

趙阿美니는 『3, 4년전부터 혈압이 높아지고 숨이 차서 목소리가 전만로 하다』고 미안해 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의 길게 뽑는 부분에서는 기력이 떨어져 전처럼 이어가지 못해 안타까울때도 없지않으나 아직은 맑고 편하다.